

보리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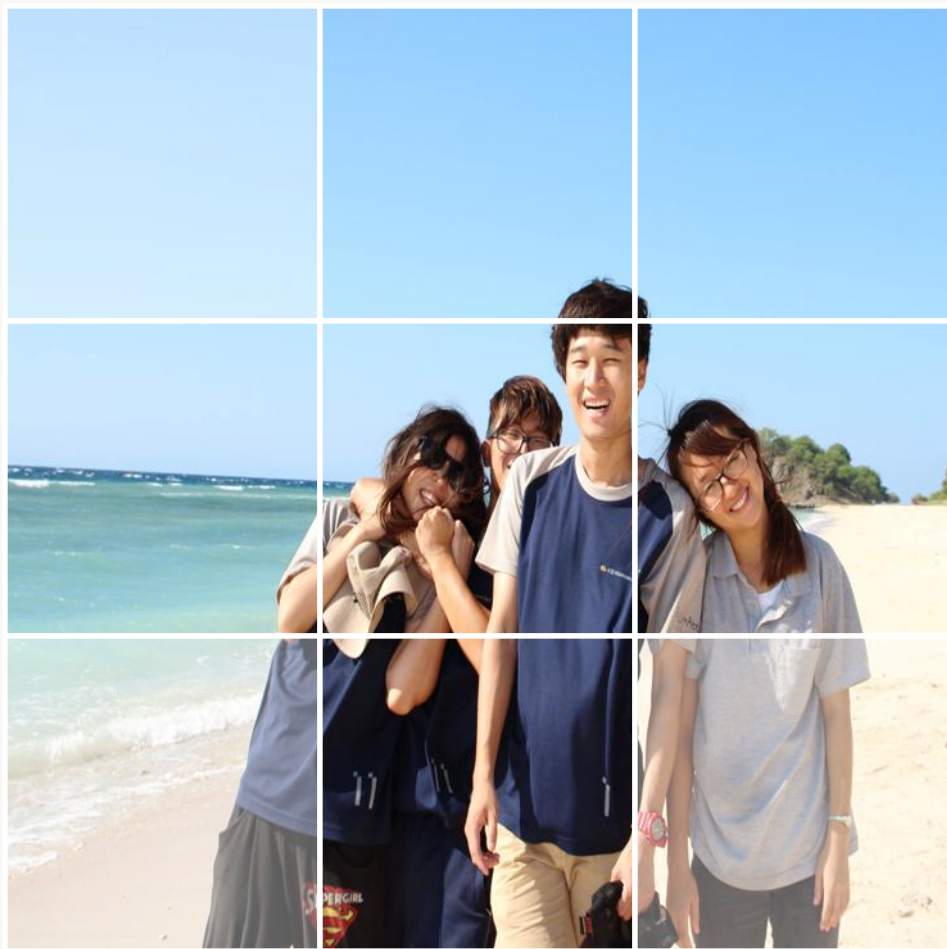


JUNE



2014 JUNE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VISA TRIP
8	9	10	11 중간평가	12	13	14 청년들과 350PPM
15 아이들과 바다!	16 HOME STAY	17 나무 심기	18	19 YMCA 센터 대청소	20	21
22	23	24	25	26	27	28 LOSPALOS
29	30					



6월 **활동** 소개

06/05 ~ 06/08 VISA TRIP



3개월이 최대인 티모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6.5일부터 6.8일까지 발리로 비자트립을 떠났다. 발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우붓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꾸따를 다녀왔다.



티모르 팀의 특혜(?)인 비자트립을 다녀왔어. 많은 곳을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정말 잘 쉬다 온 것 같아.

사람들이 왜 발리, 발리 하는지 알겠더라,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면 발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물론 티모르도 들려야지



유명한 휴양지인 발리에 가게 되어서 많이 설렘.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일정에 더 많이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 그래도 우붓에서 티모르보다 저렴한 가격에 쇼핑도 하고 꾸따에서 파도도 탈 수 있어서 재밌었어. 설레는 마음에 정신없이 출발하느라고 슬리퍼를 신고 간 것도 기억에 남는 점 중에 하나야.

정말 좋았다는 말 밖에는 할게 없네.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붓, 바다 휴양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꾸따. 다만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워 꾸따나 우붓 한 곳만 정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또 가보고 싶다.



06/09 ~ 06/13 중간평가



여수 YMCA 김일주 간사님이 중간평가를 위해 티모르에 오셨다. 개인 면담과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오실줄 알았는데 오셔서 좋았지 오랜만에 일주간사님의 개그를 들어서 더 좋았고 (ㅋㅋㅋ)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개인면담이 많이 힘이 되었어. 우리들의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여태 게으르고 소극적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

개그는 오빠만 재밌지 않았을까? (정색)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못 볼 줄 알았던 김일주 간사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 간사님이 오신지 이틀 만에 홈스테이를 시작해서 많이 만나고 이야기 나누진 못했지만 간사님께 많이 위로 받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어. 아쉬기도 하지만 홈스테이 기간에 오셔서 내 티모르 가족을 보여드려서 기뻐.



5월에 예정되었던 중간평가를 6월에 하게 되었잖아. 중간평가 즈음에 혼자 고민이 좀 많았어. 한국생각도 많이 났고. 그때 마침 일주 간사님께서 오셔서 반가웠어. 특히 일주 간사님께서 가시면서 주고가신 편지가 그때 내 상황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 사실 중간평가를 전후로 우리 활동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 싶었는데 일주 간사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고 가셨어. 홈스테이 기간과 겹쳐서 간사님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정말 나에게 딱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처음의 의지는 많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었어. 하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국내훈련 때 우리를 돌봐주셨던 일주간사님을 만나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마음 한편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 일주간사님을 통해 국내훈련 때의 열정 있던 나를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06/11 ~ 06/18 HOME STAY





동네 청년들의 아지트, 함께하는 가족 수만 11명 심지어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할 땐 청년과 가족 모두 합쳐 14명이 밥을 먹었다니까? 내가 설거지 한다 옷 땀도 해도 그래 하시니까 아무 부담도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어. 동티모르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구. 사람들안에 들어가니 그제야 라온아띠 활동이 보이는 것 같았어. 함께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말야 시간이 한 주 밖에 안되서 아쉬웠네.

나는 드디어 티모르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우리 집은 엄마, 오빠, 새언니, 동생, 아기 두 명으로 총 7명이 살아! 평소에도 자주 놀러가던 집이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족이 돼서 기뻐.

아이무틴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밖에서 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이무틴 집이 얼마나 티모르 생활과 동떨어져있는지 깨달았어. 잠자는 시간에서부터, 음식, 화장실, 모든 것이 달랐지만 티모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좋았어. 또 홈스테이를 계기로 테라산타와 더 친해진 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가족들과 둘러앉아 같이 TV를 본거야.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마치 한국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밥먹고 TV보는 기분이었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또 밤의 테라산타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어.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은 무얼하고, 청년들, 또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었거든. 밤에도 열심히 이집 저집 돌아다녔더니 테라산타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어.

오빠 밤에 타시아네 집만 갔다 온 거 아니었어?
나는 홈스테이 이후로 늘 말했지만 나에게 홈스테이는 정말 힐링이었어.
사실 홈스테이 가기 전 며칠 동안 혼자서만 요리하고 밥상 차리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날도 있어서 괜히 짜증이 좀 나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홈스테이 가서는 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빨래도 동생이 도와주고,
센터에서 집까지 미끄롤렛을 타고 오는 수고도 없이 활동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정말 편했지. 그리고 사실 우리 집이 가장 좋았잖아.
침실도 넓고 침실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아이무틴 숙소보다 더 편하게
지내다가 올 수 있었어. 우리 집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지 않으셔서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언니, 오빠만 있어서 처음엔 서운했어. 티모르에도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가끔씩 힘들면 어리광 부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동안 주말에도 센터 활동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지내지
못해서 아쉬웠지. 하지만 홈스테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들려서 물도 얻어
마시고, 점심도 얻어먹고 언니랑 수다도 떨다보니 그런 서운함도 이젠
없어졌어. 그리고 로스팔로스에서 엄마, 아빠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정말
서운하지 않아.



주희가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구나, 그랬구나...

06/15 아이들과 바다!



테라산타 마을 아이들과 오라토리오 선생님들과 함께 헤라 지역 바다로 소풍을 다녀왔다. 오라토리오 선생님들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달에 청년들과 바다에 다녀와서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 했었잖아, 함께 가지 않았다고. 이번엔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솔직히 오라토리오 선생님들이 같이 가주시고 프로그램도 진행해주셔서 편하기도 했어. 장소도 놀기에 아주 좋아서 나도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 하고 왔지. 그동안 몰래 아꼈던 마테우스가 바다에 가니까 먼저 다가와주고 같이 놀아달라고 먼저 해줘서 진짜 좋았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온거야. 티모르에서는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게 아무렇지 않는 걸까. 오라토리오 선생님들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여쭙봤을 때 그냥 버리고 간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 그래도 한곳에 모아두긴 했지만 어쨌든 버리고 온거잖아.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처리했어야 됐나 싶어.

가져올 여건이 안됐지.



쓰레기 담을 봉투도 없었어.



그리고 자리도 없었지.



아무튼, 드디어 아이들과도 바다를 갔다 왔어. 저번 청년들과 바다 간 곳은 너무 돌이 많아 놀기 부적합하다는 피드백을 통해 헤라지역의 바다를 갔어. 바다도 좋고 아이들과도 많이 놀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멀어서 오고 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불렀던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

진짜야?



진짜지 그럼!



아이들과 함께 간 바다, 통제도 제대로 안돼서 막 놀았지만 그게 아이들과 노는 재미니까. 근데 살이 너무 타서 슬프네...



06/26 ~ 06/29 LOSPALOS



딜리를 벗어나 로스팔로스에 방문했다.
6시간 걸려 도착한 로스팔로스에서 딜리와
다른 환경의 티모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동티모르의 동쪽 땅 끝인 뚜뚜알라와
콤비치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가는 날 들뜬 마음에 차에 올랐지. 7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지역마다의 색다름을 느끼며 도착한 로스팔로스, 드넓은 평야에 자유롭게 뛰노는 소와 말이 있는 곳이라 하면 되려나? 날씨도 시원해서 좋았어. 또한, 지방이라 도시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볼 수 있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침마다 씻기 위해 우물물을 길은 것? 아 새로운 경험이었어

새로운 티모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 난 티모르 전체가 나무가 없는 줄 알았거든 여태까지... 그런데 이런 지역이 있었다니! 로스팔로스에 다녀온 4일은 나에게서는 더없이 소중한 기간이 될 것만 같아.



총장님의 고향인 로스팔로스!! 정말 좋았어! 로스팔로스에서 살고 싶어!! 둘째 날에 조금 아파서 계속 차로 가는데 멈춰 달라 해서 죄송했어. 하지만 오랫동안 아프지 않아 다행이야. 우물도 길고, 코코넛도 직접 따먹고 동물도 많고!! 악어 봤어 악어! 정말 행복했어. 총장님 로스팔로스에서 불러주세요. 언젠든 달려갈게요.

(지나가던 양동화 간사님) 어쩐지 총장님이 너 욕 많이 하시더라...





수도인 딜리를 벗어난 티모르의 모습은 정말로 딜리와 많이 다르더라고. 딜리를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복잡한 딜리와 달리 여유로워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로스팔로스까지 6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긴 시간동안 계속 게임하면서 갔던 것도 기억에 남을 일인 것 같아. 특히 거의 2시간 정도를 노래 제목 대기를 계속 하면서 갔잖아. 그때 한결이가 병맛 랩도 해주고 성대모사도 해줘서 정말 배 아플 정도로 웃을 수 있었어. 로스팔로스 도착해서는 총장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보고 한국에서 온 딸, 아들이라고 해주셔서 나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냈는데 총장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아빠랑 연세가 비슷해서 진짜 우리 아빠 같았어. 게다가 내 티모르 성도 총장님과 같아서 아빠가 계속 멘데스라고 부르면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어. 라우라우랑 미미랑 셀름린이랑 같이 놀았던 것도 좋고, 같이 갔던 개비도 동생인데 계속 우릴 챙겨줘서 고마웠어. 로스팔로스에서도 그렇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렇고 총장님이 계속 걸어가거나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태워서 데려다주시고 그랬잖아. 센터에서도 총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고 우린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밖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챙기는 총장님을 보면서 정말 반했어! 사실 딜리보다 로스팔로스가 더 좋다는 생각도 했어. 4일 밖에 못 있어서 아쉬운데 어쩌면 짧아서 더 좋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로스팔로스는 정말 또 가고 싶어.

이때까지 언니 마음이 불편했었구나, 그랬구나...



@350 PPM 06/14 쓰레기 처리장, Tasi Tolu 방문



티모르의 환경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총장님과 함께 Tibar(쓰레기 처리장)과 Tasi tolu를 방문했다. Tibar에서는 별도의 정화 시설 없이 딜리의 모든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si tolu는 이전부터 아띠들이 고민했던 나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350 PPM 06/14 350 PPM 미팅



청년들과 함께 350PPM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Tibar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와 Tasi tolu에서 보았던 나무 문제를 설명하고 그룹을 나누어 그것에 대하여 함께 토의를 했다. 그리고 아띠들과 청년들이 함께 티모르의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하고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다.

@350 PPM 06/16 ~ 06/18 나무심기



홈스테이 기간 동안 테라산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센터 앞에 나무를 심었다. 염소와 소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도 만들었다.



우리가 한 350ppm 활동의 결과가 어떨는지 간에 나에게 350ppm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 사실 우리 활동에 대한 지적들 중에 게으르고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잖아.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뻔 했는데 우리가 지적 받은 직후 이를 악물고 바로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나무 심을 준비를 했잖아. 그러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해줬잖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청년들이랑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만들다보니까 그 나무의 생사와 상관없이 같이 뭔가를 했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 미팅을 하면서도 총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인지 티모르의 진짜 문제를 찾아보고 청년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같이 지키고 싶은 점들을 나눴잖아.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점인데 그 이후로 장을 보면서도 비닐봉지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우리가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스스로 뿌듯해. 그리고 특히 레오가 350PPM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잖아. 우리가 비록 준비를 많이 못해서 많은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친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내가 한 게 정말 없는데 공감하고 관심 가져줘서 고마웠어.

주희가 많은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랬구나...





청년들을 불러모아 앉혀놓고 350PP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화두를 던져주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우디스간사님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무심기 활동에서 왜 이 나무를 심어야 하고 또 이 나무의 주인은 누구인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만 심고 울타리만 만들고 끝난 게 아쉬워 개인적으로는

350PPM이 홈스테이 기간과 함께 진행돼서 좋았어 청년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더라고, '도와줘'에서 '함께 하자'가 되니 좋았어. 미팅 때는 우리가 미리 해결책이나 원칙을 정해 놓고 청년들과 조를 나누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들이 우리가 먼저 정해놓은 원칙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청년들도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비자트립이다 뭐다해서 350PPM활동이 많이 늦어졌었어. 나무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영소들이 다 뜯어먹은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설치했지. 또 지금이 건기라 물을 자주 줘야 돼서 우리가 없을 때 걱정이야. 청년들과 미팅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PPM에 대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마웠어. 청년들과 미팅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YMCA의 재봉틀하시는 언니들과 장바구니 만들기를 진행 중이야!

또, 테라산타에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서 쓰레기통도 만들어서 센터에 놓았어.

@ 아띠글라세 04/07 ~ 과학, 게임, 미술,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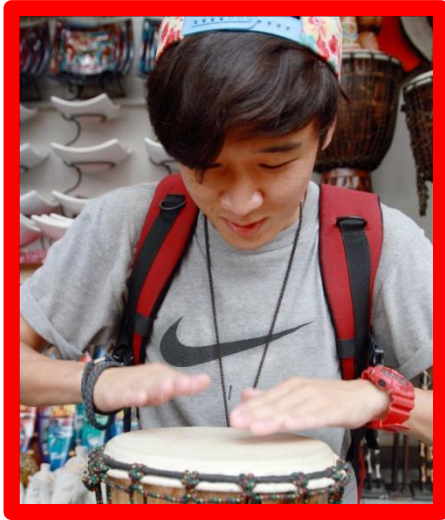
@ 아띠끌라세 05/23 ~ 한국어



6월 중순부터 아띠들은 아띠끌라세 담당과목(한국어 수업은 제외)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아띠끌라세를 운영하지 못한 날이 많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 코너



제프리의 보니따리오



안녕하세요! DJ 제프리입니다. 이번 달은 '보니따리오'의 마지막인 만큼 특별하게 우리 테라산타 아이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매력 넘치는 귀여운 아이들 재미나게 봐주세요! (사정상 아이들 다 못 담아서 아쉬움ㅠㅠ)

엔딩곡은 015B의 이젠 안녕!



매일 손잡고 같이 집에 가는 예쁜 타시아



눈 큰 까불이 아곤다



예쁜 누나들 둔 아마우



사진으로만 보면 참 이쁘는데 30분만 같이 놀면 저리 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말썽장이 아피스



나 좋아해서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 린다



덜렁이 코찡찡이 아께옹



평소엔 만나니지만 알고 보면 착한 에르팡



맨날 우울한 표정에 짜증은 덤! 케이



관심 안 가져주면 심통부리는 아베



센터의 병맛 담당 한결이 동생 아루시



딱밤 쳐주고 싶은 폭력적 까불이 주희 동생 애자



축구 정말 잘하는 아시우



벌써부터 개그맨 끼기 보이는 한결이 동생 아델리



볼수록 정가는 아마누



보면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타시아



못생겼는데 너무 귀여운 불여시 아빠띠



가끔씩 센터 와서 수업
보조교사하는 아페로



맨날 나보면 무서워하는
내 동생 노디



수줍음 많은데 의외로 졸졸
잘 쫓아오는 아니까



나무 울타리 만들 때
도와줘서 많이 친해진 아겔



실물이 정말 이쁜 첼시아



부잣집 아들 아겔



동네 청년들로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만 듣고
다니는 현재 박박이 로삐따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
싸싸이



센터 좀 자주와! 아리세



외국인은 무조건 좋아하는
띠따



사진은 이렇게 나왔어도
머리 풀면 이쁜 산드라



분명 어린데 몸이 너무 좋은
내 동생 아줄리



원래 엄청 귀여운데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지... 넬류



이사가서 이제 안 오는
보고싶은 귀여운 이자



축구부를 그만둬서 센터
안 옴. 그래서 이제 못 보는
보고싶은 에두



내 티모르 여자친구 촌데레
얀띠 (밀당의 왕)



한결이 첫사랑 닮았다는
로비냐



여자 단원들의 사랑 독차지!
잘생긴 훈남 에데



아기인데도 잘생긴 게
보이는 게핑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어린
애들 때리고 다니는 아존



잘 안 씻지만 그래도 귀여운
마르페



원숭이 닮아서 더 귀여운
내 동생 아베노



오랫동안 시골갔다가 다시
돌아온 보보대장 아레니



수업을 파괴한다! 파괴신
마테우스
(근데 볼수록 정들어...)



이쁘지만 센터엔 잘 안 오는
타냐



처음엔 맨날 달려와
안기더니 요즘엔 안 그러네
서운하게... 때피



착하지만 힘 약한 아피누



이제 곧 돌! 딸 부잣집
막내딸 아모라



웃는 게 매력적인 아메우



춤 잘추는 축구부 까불이!
첫 번째 티모르 친구 리발도

리다 리따의 티모르뉴스

<환영> 아이무틴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티모르팀 남자 단원들 머리 자르다!

맛집기행 - ③ castaway





또 하나의 가족 '로팔'

이름: 로팔 성별:남 특징: 흰털을 가지고 있음 매우 잘생기고 귀여움

로스팔로스에서 닭 한 마리를 공짜로 얻게 되었다. 리파는 정말 키우고 싶어했고, 제니는 매우 키우기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간사님들과 긴급회의를 하였다.

반대가 더 많았지만 양동화 간사님의 조건부 허락으로 로팔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공식명칭은 로팔이나 Toni-스노윙치킨, Jeni-여진이, Jefri-진짱, Mana clara-꼬꼬 등 여러가지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로팔이를 키우게 해주신 간사님들과 로팔이 집을 만드느라 수고한 Toni 와 Jefri 그리고 그동안 밥을 해준 Jeni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로팔이 집 만들기를 도와준 Jefri와 Toni>



<리따의 일상생활, 일방적인 로팔이 사랑>



<완성된 로팔이 집. 잠잘 때만 들어간다>



<로팔이가 처음으로 쳐다봐 줌>

티모르팀 남자단원들 머리자르다! -Jefri



<Before>



<After>

어느 날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간 jefri. 인도네시아어 밖에 모르는 직원 때문에 원하는 대로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 하지만 양동화 간사님의 도움으로 귀여운 벼섯머리 완성!

티모르팀 남자단원들 머리자르다! - Toni



<Before>



<After>

동네 청년들로부터 머리를 잘라주겠다는 프로포즈를 많이 받은 Toni. 홈스테이에 들어가자마자 동생인 Octo가 머리를 잘라주었다. 머리는 티모르의 최신유행인 튜블렉컷. 아피들은 얼굴이 더 커 보인다고 놀렸지만 티모르 여자들에게는 인기남이 되었다.

Castaway



한국대사관 주변에 있는 가게이다. 유명해서 택시 타고 캐스트 어웨이를 외치면 바로 갈 수 있다. 아파우로 섬이 보이는 오션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여기서 수제 햄버거가 가장 맛있다. 가격은 8불에서 12불 사이.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주 고객이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가격이 아깝지 않게 맛있다!



다음달부터는 음성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다음달에 만나요 안녕



Ama Jeni 의 요리교실

오늘의 요리는?

야채볶음

준비물 : 감자3개, 양파1개, 당근1개

(야채의 개수와 종류는 입맛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티모르팀에는 아가들이 많아서 당근과 양파는 조금 넣는다.)

1. 감자와 당근, 양파는 채썰기를 한다.
2.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군다.
3. 당근을 프라이팬에 넣고 3분정도 볶는다.
4. 감자를 프라이팬에 같이 넣고 3~4분정도 더 볶는다.
5. 양파를 프라이팬에 같이 넣고 당근, 감자, 양파가 익을 때까지 볶는다.
6. 야채가 거의 익을 때 짬 양념을 넣고 같이 볶는다.(양념은 다음 장에)



한국이 그리운 날엔 고추장 양념. 6-1.
고추장 2큰 술, 간장 2큰 술, 설탕 1큰 술

아이같이 징징거리고 싶은 날엔 케첩 양념. 6-2.
케첩을 적당히 넣는다.(헤이저와 같은 달달한 케첩은 비추)

팀원이 싱거운 농담을 자꾸 던지는 날엔 소금 양념. 6-3.
소금을 적당히 넣는다.
맛있게 먹는다! 7.



→ 오늘은 한결이 때문에 소금 양념

다음 호는 엄마가 해주는 밥 😊

토니의 사진전



당돌한 우리 집 막내 아델리



“Karik rai nakdoko selae hau uluk”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시던 총장님

고향인 로스팔로스에 가신 총장님은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손짓 발끝 얼굴표정

발리 전통 춤 '개작'





2014년 월드컵.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을 때 마다 온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티모르.

자신들을 식민지배 했던 나라를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

요즘

테라산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요리 놀이.

사실 어릴 때 불장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만 문제는 아이들이 주로
태우는 **플라스틱, 비닐**이다.

아무리 태우지 말라고 해도 불이 더
강해진다며 계속해서 태우는 아이들...

주로 나무땃감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가정집에서도 대부분 이것들을 태우고
죽어가는 불도 다시 살려내는 효과가
있으니...

삶과 연관이 되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아이들이
태우는 건 막아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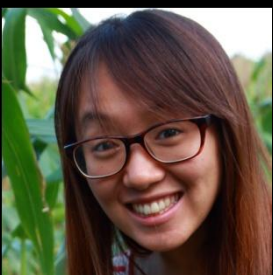




개



인



소



감



홈스테이를 계기로 많은 집들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어딜 가든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보다 폭넓게 친해질 수 있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 시간들이, 그간 지쳤던 내**

마음을 보듬어주었다.

홈스테이 이후 사람들의 묻는 방식이 바뀌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 언제 돌아가느냐고 묻고는 내가 8월이라고 대답하면, ‘아직 멀었네’ 물어보고서도 별 관심 없는 듯 대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8월에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가면 다시 안 와?, 나중에 꼭 다시 와야 해.’, ‘연락하고 지내자!’ 아직 집에 가려면 시간이 남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아쉬움이 나에게 전해지며 마음 한편이 저릿저릿해져 온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다는 게 느껴진다. 언젠가는 여기서 있을 날들이 영원같이 느껴져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머물 날은 딱 한 달이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이다.

사람들은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만남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다. **딱 한 달 남은 이 시점 이제는 하루하루가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모두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일도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들어주고 싶다. 떠나는 날 못해준 것들로 인해 후회하지 않도록...



많이 상처받고 많이 위로받은 한 달이었다.

홈스테이 가기 전에 약간 우울해 있었는데 홈스테이를 통해서 티모르에서의 삶이 다시 즐거워 질 수 있었다. 힘들었던 나에게 쉬는 시간이 되었고, 홈스테이 이후로

떼뚱어가 느니까 그동안 다가가기 어려웠던 청년들과도 더 많이 어울릴 수 있었다. 중간평가 전후로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를 내리면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두들 마음을 다잡고 다르게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조금은 변한 모습에 은근히 부듯했다. 홈스테이와 중간평가 이후 변한 우리들의 모습에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어땠을까, 좀 더 빨리 떼뚱어를 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우울해질까봐 남은 2개월을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 점에서 6월을 되돌아보면 그럭저럭 만족할만하게 지낸 것 같다.

마지막 남은 7월 한 달도 마지막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면 좋겠다.



“같이하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다. 나는 항상 그래왔다. 같이하자 설득하느니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편했고, 그러다 혼자 한다는 불만을 팀원들에게 표출하곤 했다. 팀원들은 항상 내게 왜 말을

안 하나 물어보고, 갈등이 생기고... 하지만 라온아띠 활동을 하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알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팀원들과 조금씩이라도 같이 해보려 노력하려 한다.

행복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돼서, 집 가느라 비좁은 미끄롤릿에 오르지 않아도 돼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청년들과 더 가까워져서, 아이들이 더 반갑게 맞아줘서, 이젠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같이하자 사람들을 불러도 돼서, 이제야 조금 마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행복했다. 4개월 기간 그리고 홈스테이, 이제는 **이 마을이 정말 나의 집 같다.**



6월 달에는 많은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홈스테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다. 먼저 티모르에서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

센터 끝나고 편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생긴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또 테라산타의 밤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아이무틴에서 느낄 수 없었던 티모르의 진짜 삶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떼뚱어가 많이 늘었다. 불편했던 점은 집에서 매일 일회용 샴푸를 받아쓰는데 가족이지만 눈치가 보였을 때, 매일 야채만 먹었을 때, 식기를 주방세제 대신 빨래세제로 설거지를 해서 기름이 하나도 안 지워진 식기를 볼 때는 ‘아이무틴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홈스테이 기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가라고 권했을 때 거의 거절하지 않고 다 먹고 다녔다. 그런 나를 보며 제프리의 티모르 엄마와 나의 티모르 언니가 ‘**리따는 티모르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다. 티모르에서 받은 칭찬 중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한다.

티모르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테라산타를 위해 무엇을 지어주거나, 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밥 맛있게 먹는 것. 지역사람들과 밝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것이 티모르를 사랑할 수 있는 큰 것임을 배웠다.

6월 중간평가가 끝나고 내가 반성했던 점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나만 영향을 받으면 별 상관없지만 내가 주도해서 다른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이때까지 남이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ㅋㅋㅋ) 내가 문제였나 보다. 내 성격상 '이것보다 더 추가해보자 더 꾸며보자'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짜증내거나 '하지말자' 소리는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보고서지만 벌써 7월이 많이 지난 것 같다.

남은 기간동안 팀원들과도 우리 로팔이랑도 건강하게 잘 살다 오겠다.

다음 호는 없어요
☹️

